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권경득 |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8%로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양호한 수준이나 청년고용률은 22.9%로 OECD국가 중 최하위수준이며, 매년 하락추세에 있다. 미취업 청년층의 증가는 당사자 개인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재정부담 및 산업인력의 노쇠화로 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이 우려되므로 국가적 관심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청년층 고학력자의 실업문제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에 한정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개방화·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해외취업진출을 통한 청년 고용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해외취업진출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해외 인적교류를 통한 새로운 기술 획득, 해외 직장 경험 등으로 글로벌화에 대응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는 등 경제외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봉사 2만명 등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을 양성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책목표는 해외취업·연수 활성화를 통한 청년 고용 촉진에 있으며, 대상자는 학교 졸업(예정)자, 청년실업자 및 취업 애로층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해외 구인 수요처 발굴 강화」, 「우수 민간기관 육성 및 활용」, 「해외연수 참가자 사전·사후관리 강화」 등이 있다.

해외취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청년해외취업프로그램의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실질적인 성과도 기대만큼 높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연수사업은 사업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집행은 “알아서 하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외취업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국내외 관련기관들로 구성된 ‘해외취업 거버

년스의 구축'이 요구된다. 해외취업 시장의 경우, 그 예측이 어렵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구축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하고 있는 해외인턴프로그램의 경우, 취업률이 10%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실시하면 보다 높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권역별)로 대학 간 연계를 통한 해외취업의 활성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취업 초기단계에서는 교육내용, 강사, 시설 및 장비, 재정, 교육생 등에 대한 기준 준거틀(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제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별 취업관련 통계조사 시에 '해외 취업률 지표'를 추가하여 대학의 취업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대학 취업률 평가에서 해외취업에 대한 가중치를 높일 수도 있다. 해외취업을 파악은 고용계약서, 비자사본, 출입국 입증 서류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대학별 해외취업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해외공관의 투자진흥회의에서도 해외취업이 주요 의제에 포함될 정도로 해외취업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관심은 높은 실정이다. 외교통상부의 경우 국가별 대사 실적평가에서 해외취업률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해외취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부의 지원 분야는 취업 해당 국가와의 취업비자 문제의 해결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취업비자를 쿼터제로 운영하고 있어 해외취업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요양보호사 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해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와 MOU를 체결하여 취업비자의 문제를 해결하

고, 양질의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

해외취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고등학교의 외국어 교육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살아있는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젊은이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 주어야 한다. 해외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대의 현실 인식과 비전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최근에 실시한 청년해외취업관련 조사결과에 의하면 상당수 대학생들이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외취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인식을 상당수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어 해외취업을 위한 어학프로그램과 연수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진다면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지 기업인들은 '한국 청년들이 성실성과 근무태도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언어문제, 현지인과 다른 생활습관 등이 청년 해외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언어장벽의 극복과 상이한 문화에 대한 적응이 해외취업에 있어서 최대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외취업대상 국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청년해외취업연수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미취업 고학력 인력에게 있어서 해외취업은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최근 국가적 난제(難題)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해외취업 확대는 새로운 차원에서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청년해외취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